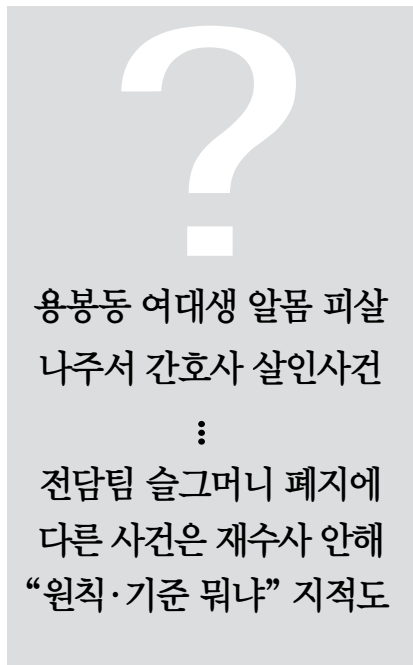


미제사건 전담팀 생색내기 운영 실마리도 못 찾는 '살인의 추억'

경찰 '드들강 여고생 살인' 재수사...광주·전남 미제사건 주목

#. 딱 5개월 남았다. '그 놈'을 범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나주병원 간호사 A(당시 21세)씨는 지난 2000년 8월 18일 나주군 봉황면 만봉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웃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 대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당시 담당 경찰은 물론 재수사를 벌였던 미제사건 전담경찰도 최근 다른 부서로 옮겼다. 더 이상 여성 간호사 살인범을 잡는 경찰은 없다.



전남에서는 ▲나주 간호사 살해 사건(2000년 8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사건(2001년 2월)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2010년 10월) 등 8건의 강력 사건이 영구 미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 범죄수사규칙(198조 등)은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6개월이 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이뤄지면 '미제사건'으로 분류, 기록철에만 보관된다. 전남 경찰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2013년 2월 의욕적으로 꾸렸던 전담팀을 1년여만에 슬그머니 폐지해버렸다. '보여주기식' 소를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리는 장기 미제 사건을 2명의 '전담팀'에게 맡겨 '생색내기식' 치안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 편의주의... 피해자 배려해야 =나주경찰의 경우 최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나주병원 간호사 알몸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오래된 미해결 사건인 간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는 커녕,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에서 지적된 드들강 살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만 들먹이는 상황이다. 경찰은 드들강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간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지역 내 17건의 장기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와 관련,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등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특정 사건에만 재수사를 진행, 피해자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올수록 유족들에게서 재수사를 요구했을 때면 마음이 무겁다. 모든 범인을 잡고 싶다"면서도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지만 법 개정 전 사건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학생들이 17일 등교시간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교직원, 최중현 광주경찰청장과 경찰, 학부모와 함께 학교 교문 앞에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 군의원들 네덜란드 공항서 추태

의원끼리 욕설 고성 물의...경비대 연행 조사 후 귀국

영광 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귀국길에서 고성과 욕설을 섞어 소란을 피우다 현지 공항경비대에 연행, 조사를 받고 귀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체코 등 유럽 4개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영광군의회 의원 일부가 네덜란드 공항에서 다투던 중 출동한 공항경비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외연수에는 영광군의회 의원 4명, 합평군의회 소속 의

원 4명, 수형 공무원 등 12명이며, 9박10일 일정으로 지난 5일 출국해 14일 귀국했다. 이들은 1인당 500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귀국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공항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과 무소속인 B의원이 고성으로 다투며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여성인 B의원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외국인의 신고로 공항경비대

가 출동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의 다툼은 하반기 군의회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A의원의 부탁을 B의원이 거절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과 B의원은 "의견 충돌로 감정이 격해져 약간의 욕설을 주고받고 고성인 오간 것은 사실이다.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내용은 아니지만,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국민 혈세로 해외 연수를 간 군의원들이 하라는 연수는 하지않고 공항에서 추태나 부리고 한심하다"며 혀를 찼다. /영광=조희성기자 ischo@

'대인동 살인사건' 범인 7년만에 검거될까

유력 용의자 인적 사항 확인

영구 미제의 '늪'으로 빠지는 듯했던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7년 만에 검거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고작 2명 뿐인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년 전 발생한 '광주 대인동 60대 식당 주인 살해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A(62)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검거에 나선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A식당에서 주인 최모(당시 66)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 A씨로 특정 짓고 소재 파악에 들어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지난 2012년 구성된 지 1년, 사건 발생 5년 만에

확인한 것으로, 꼼꼼한 사건 재검토와 발전한 첨단 과학이 맞물리면서 가능했다.

당시만 해도 최씨는 둔기에 머리를 8차례나 맞은 채 참혹하게 살해당했지만 은행 창구 CCTV에 찍힌 사진 외에는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사진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데다, 당시 은행에서 용의자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표를 확보해도 지문 채취가 어려워 특정하지 못했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듯했던 사건은 전담팀이 없게이드른 지문판독시스템을 감안, 얼굴만 알려진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전남지역 은행에서 전표 119장을 확보했고 경찰청 과학수사대,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에 보내 두 달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2년 가까이 소재 파악에 나섰을 뿐 공개 수배 등 적극적 검거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웅기자 pboxer@

"임금 떼었다" 50대 분신 소송

○~임금이 체불된 5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방송국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송.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방송국에서 전모(55)씨가 '분신을 시도하겠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와 출동한 경찰이 휘발유 1.5ℓ 가 든 페트병을 들고 방송국 인근을 서성대던 그를 붙잡았다는 것.

○~최근에도 분신소동을 피우다 붙잡히기도 한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도에서 목수 일을 하다 임금 220만 원을 떼었는데,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요 장기 미해결 살인사건 (2000년 이후)

발생 시기·장소	사건개요	공소시효 만료일
2001년 9월 4일·서구 내방동	30대 임신부, 흉기로 가슴과 옆구리 등 11차례 찔러 사망	2016년 9월 3일
2001년 9월 6일·북구 오치동	40대 이용원 여주인, 흉기에 6차례 찔러 사망	" 9월 5일
2003년 3월 25일·남구 병림동	60대 여성, 얼굴 등 수차례 폭행당한 채 숨져	2018년 3월 24일
2004년 1월 21일·북구 중흥동	60대 건물주, 둔기로 머리를 맞고 사망	2019년 1월 20일
2004년 9월 14일·북구 용봉동	20대 여대생, 테이프로 얼굴 감긴 채 폭행, 사망	" 9월 13일
2005년 5월 15일·광산구 하산동	40대 주유소 관리소장, 둔기로 폭행당한 사망	" 5월 14일
2006년 11월 19일·남구 서동	40대 노숙인, 흉기로 8차례 찔러 사망	2020년 11월 18일
2007년 4월 17일·남구 사동	40대 택시기사, 배 등 8차례 찔러 사망	2021년 4월 16일
2008년 10월 19일·동구 대인동	60대 식당주인, 둔기로 머리를 맞고 사망	2033년 10월 18일
2009년 3월 19일·북구 중흥동	40대 회사원, 벽돌로 머리를 폭행당한 사망	2034년 3월 18일
◆전남		
2000년 8월 18일·나주시 봉황면	20대 간호사, 만봉천에서 알몸 상태로 피살	2015년 8월 17일
2001년 2월 4일·나주시 남평읍	17세 여고생, 성폭행 당한 뒤 살해	-
2004년 8월 3일·영암군 미암면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	2019년 8월 2일
2005년 5월 13일·순천시 외서면	50대 경비원, 머리 11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	2020년 5월 12일
2005년 12월 3일·여주시 돌산읍	30대 중장비 기사, 흉기로 200여 차례 찔린 채 발견	" 12월 2일
2007년 1월 5일·화순군 능주면	80대 노인, 벽돌 제조공장에서 손발 묶인 채 살해	2022년 1월 4일
2008년 9월 5일·나주시 남평읍	40대 이혼녀, 드들강에서 속옷상태로 살해	-
2010년 10월 15일·목포시 용해동	20대 여대생, 귀가 중 성폭행·살해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빈(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빈코너 룸12개 룸20개(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정문 2빈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빈 룸 18개(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생충동 원룸 1개 (운천역2빈)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장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9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 바닥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완지구 모이명/111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유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함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임할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

근린사실/근린주택 (수익성 상가)

①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자가 5천9백 (대촌산업단지 예정)
② 북구 개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9천, 최자가 4억9천 (투자적합)
③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매장점, 공업사, 특수업)
④ 북구 매곡동 (토 1,66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5억9천 (스포츠센터)
⑤ 동구 중정동 (토 155.4㎡,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자가 5억9천 (문화의전당)
⑥ 상가건물 2층 → 담양권 공생면 (편선, 4명 시설) 감평가 27억~12억
⑦ 상가건물 6층 → 광양시 중동 (중상가도입형) 감평가 26억~26억
⑧ 상가건물 4층 → 여주시 교동 (신내중상지역) 감평가 13억~10억
⑨ 상가건물 3층 → 충주시 성서동 (신내중상지역) 감평가 30억~12억

근린 상가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② 순천시 정천동 (토 423㎡,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5억7천
③ 광주 남구 봉선동 (대 38㎡, 건물 61㎡)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9천
④ 광주 서구 금호동 (대 180㎡, 건물 295㎡) 감평가 6억9천, 최자가 3억9천
⑤ 광주 남구 봉선동 (대 173㎡, 건물 589㎡)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
⑥ 광주 남구 노대동 (대 703㎡, 건물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4천

주요소

① 서구 마림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1백
② 남구 안촌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9천
③ 광양시 북동동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8억9천

토 지

① 서구 매월동 (토 1,900㎡)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9천1백, 최자가 9천1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기본+실전)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개발까지)

① 오전반 (목요일) 9시30분 ~ 11시
② 오후반 (목요일) 7시 ~ 8시30분
③ 주말반 (특별반) → 상담가능

엔피엘교육 (부실채권)

★ 3월 23일(월요일) 첫 개강 ★

① 오후 (월요일) 7시 ~ 9시까지
② 집중 엔피엘교육 (기분부터 실전까지)
③ 서울 유명 교수님 초빙

※ 경매 실전 위주반 모집(기본 + 실전) 1년

010-6832-9700
010-2699-5300